

# 난대수종 알아보기

## 새봄에 더욱 돋보이는 홍가시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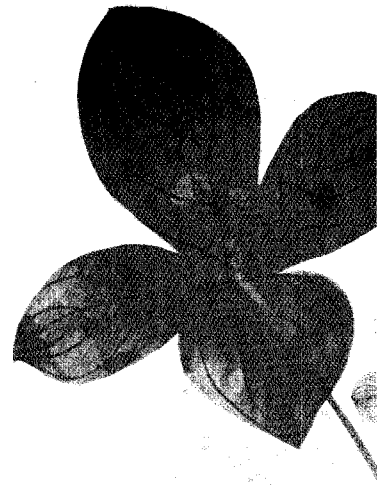
남부지방의 가로변을 아름답게 장식해오던 관목류의 식재 수종들이 영산홍, 진달래, 산철쭉 등이 주류를 차지하였으나 최근 홍가시나무의 돌풍과 함께 남천, 팽팡나무 등의 상록활엽수종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조경수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가고 있다.

홍가시나무의 원산지는 중국과 일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를 비롯한 경남, 전남북 지역에서 식재되고 있으며 근래에 따뜻한 한반도의 영향을 반영하듯이 대구, 광주지역을 비롯한 지리산의 산록지역이나 더 추운 곳에서도 홍가시나무의 재배가 시도되고 있는데 난대수종의 북상현상에 대한 기대 심리로 점점 중부권으로 식재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너무 앞질러 가는지도 모를 일이다.

홍가시나무의 학명은 *Photinia glabra*로 속명 *photinia*는 “광택이 있다”라는 어미의 그리스어인

*photeinos*에서 파생된 것으로 반짝이는 잎을 가졌다는 뜻을 나타낸다. 종명 *glabra*는 “털이 없다”는 의미로 쓰였다. 즉 학명의 의미는 잎에 털이 없고 광택이 나는 잎새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이른 봄에 새잎이 돋아날 때 마치 붉은 꽃이 일제히 피어나는 것처럼 새빨간 잎이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게 한다. 잎의 모양은 가시나무와 유사하고, 신초가 붉은색이라 홍가시나무라고 명명을 한 것 같다. 가시나무라는 이름은 나무에 가시가 있는 나무 즉 찔레나무를 연상할 수 있겠으나 가시는 이 나



신현철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연구소

무와 전혀 관계가 없다. 또한 참가시나무, 붉가시나무와 같은 참나무과의 집안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도 관계가 없다. 즉 종가시나무, 참가시나무 등은 상록형의 참나무과이고 홍가시나무는 장미과이므로 완전히 다른 집안이다.

일본어로는 アカメモチ(赤芽鱗)라고 하는데 아카는 붉다는 뜻이며 메는 눈을 뜻하고,モチ는 떡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끈적끈적하다는 뜻인 리(鱗)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나무의 특징은 상록관목 또는 교목으로서 3~10m 정도 자라며, 가지는 회흑색이고 털이 없다. 잎은 어긋나고 가죽질로 뻣뻣하며 양면에 털이 없다. 잎 길이 5~12cm, 잎 너비 2~4cm, 잎자루 길이 0.8~1.7cm 정도이다. 봄에 돋는 새 잎이 붉은색에서 초여름에 접어들면 점점 녹색으로 변한다. 신초의 색깔이 선홍색과 연홍색이 있는데 감상가치는 선홍색이 더 있어 보이지만 생장은 연홍색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 대부분의 난대수종들이 자유생장을 하는데 홍가시나무도 4월경 새잎이 돋어나 여름을 지나며 생장을 정지하다가 10월경 다시 생장을 하는데 이때도 봄철보다는 못하지만 붉은 잎을 일부 감상할 수 있다.

꽃은 5~6월에 새 가지의 끝에서 산방화서로 피는데 직경은 7~13mm이고, 색깔은 흰색으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작은 꽃송이들이 모여서 수관전체를 덮도록 어우러져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한다.

열매는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붉게 달리지만 크기가 지름 5mm 정도로 작아 잎이나 꽃처럼 우리의 시선을 끌지는 못하지만 소담스런 열매가 모여 달려있는 모습에서 나름대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번식은 종자와 삽목으로 가능하며 꺾꽂이 시기는 새잎이 돋기 전 3월이나 신초가 굳어지는 6~7월에 녹지 삽목으로 개체를 증식시키는데 반 음지를 좋아하지만 뿌리가 내리기 전의 삽목묘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해가림을 할 필요는 없다. 삽목이 용이하기 때문에 파종은 거의 하지 않지만 종자로 번식할 때는 11월에 열매를 채취하여 2~3일간 물에 담가두었다가 손으로 주물러 과육을 분리시킨 다음 물로 정선한다. 정선된 씨앗을 직파하거나 종자가 건조하

기 전에 밀봉한 다음 저온저장 하거나 모래와 섞어 노천에 묻어두었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하며, 파종량은 m<sup>2</sup>당 8g 정도로 산파하며 발아율은 30% 정도 되며 평균 묘고는 15cm 정도이다.

용도는 정원수, 가로수, 생울타리로 많이 심고 있는데 단목 식재보다는 열식이나 군식으로 심으면 어울린다. 맹아력이 매우 강하여 전정을 하면 부정이 잘 돋으므로 원하는 형태의 수형을 잡아가지가 좋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토피어리로도 활용할 수 있다. 독립수로도 식재 가능하며 열매와 잎은 약으로 이용된다.

특히 9월 하순~10월 초순 사이에 전정을 하면 전정 후 새잎이 돋는 중에 겨울철 저온으로 생장이 정지되면서 겨울철 내내 신초가 붉은 색깔을 유지하고 있다가 봄철 해동이 되면서 본연의 녹색으로 환원되는데 붉은 색을 감상하는 기간이 봄철보다 겨울철이 더 길어 겨울철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여 주는 셈이기도 하다. 또한 신초부위가 웬만한 추위에도 동해 피해를 받지 않으므로 이 시기를 택하여 전정시기를 맞추는 것이 좋을 것이다.

토질은 너무 메마른 곳이나 과습한 곳이 아니라면 토질을 가리지 않고 무난하게 잘 자란다. 최근 홍가시나무의 식재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중앙분리대, 인공구조물의 차폐, 생울타리 등과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재배면적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식재면적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아직도 북상한계를 높이기에는 이른 면도 적지 않다. 수십 년 만에 한번씩 닥치는 한파가 혹한기로 인해 홍가시나무 뿐만 아니라 난대 수종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 상태에서 홍가시나무의 겨울철 혹한을 이길 수 있는 방안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 중에 가능한 방법은 겨울철의 차고 건조한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북서풍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을 택하여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나무를 튼튼하게 가꾸어야 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해진다. 인접한 구간 내에 식재된 나무라 할지라도 쇠약한 나무는 동해를 받지만 건강한 나무는 충분히 월동할 수 있다. 같은 수종이라



할지라도 동해에 견디는 힘이 개체 간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내한성이 강한 우수개체를 발굴하여 식재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



겨울 잎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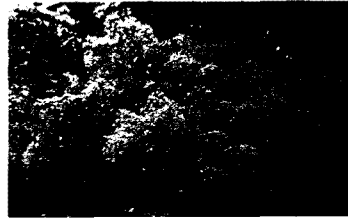
생울타리 신초광경



신초가 선홍색 및 연홍색 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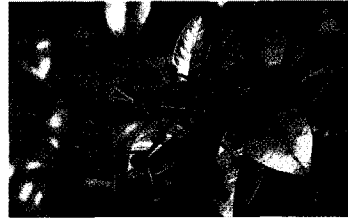
개화직전(4월 하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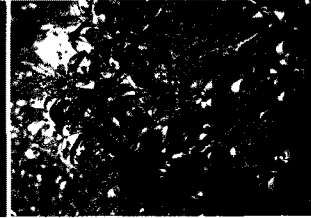
개화모습(원경)



만개한 모습(근경)



열매 근경모습(12월)



열매 원경모습(2월)



신초 모습(근경, 5월 초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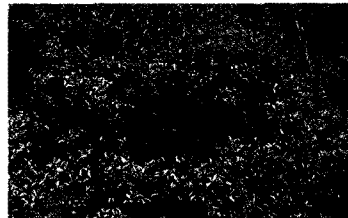
자유생장(10월 중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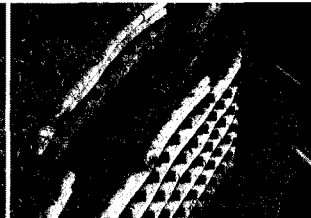
대구에 식재된 홍가시 조형목



중앙분리대 식재광경



홍가시나무 일본 자생지



가을 전정 후 신초모습  
(겨울 내내 변하지 않는다)